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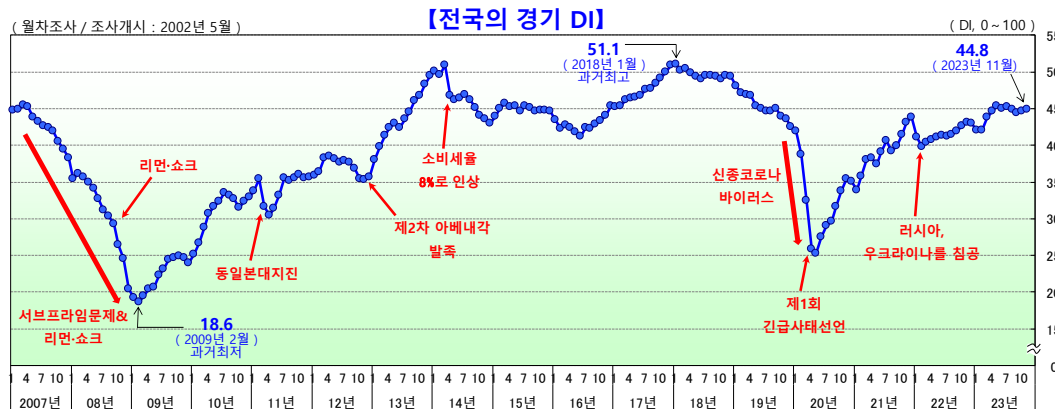
국내경기는 업계·지역으로 양극화 경향이 선명

~ 개인소비관련이 저조해도, 인바운드확대 등으로 「료칸·호텔」은 과거 최고 ~

(조사대상 2만 6,972사, 유효회답 1만 1,396사, 회답률 42.3%,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3년 11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44.8로 2개월 연속으로 개선하였다. 국내경기는 개인소비 관련이 저조하였지만, 인바운드 수요와 활발한 공공 공사의 뒷받침으로 소폭이지만 개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업계와 지역에서 양극화 경향이 선명해졌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임금 동향에 주시하면서도, 설비투자와 인바운드 수요확대에 의해 보합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건조한 자동차 관련과 인바운드를 시작으로 한 관광수요가 뒷받침하여, 10개 업계 중 4개 업계, 51개 업종 중 30개 업종에서 개선되었다. 지역별로는 10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개선, 5개 지역이 악화하였다. 건조한 자동차 생산과 신차 발매 등이 끌어올린 한편, 공공 사업 증가도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였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중소기업」이 2개월 연속으로 개선, 「소규모기업」은 2개월만에 악화하였다.
- 관광 DI는 48.1로 9개월 연속으로 전 산업의 경기 DI를 상회하였다. 특히 「숙박서비스」와 「여객수송서비스/수송설비렌탈서비스」는 과거최고를 갱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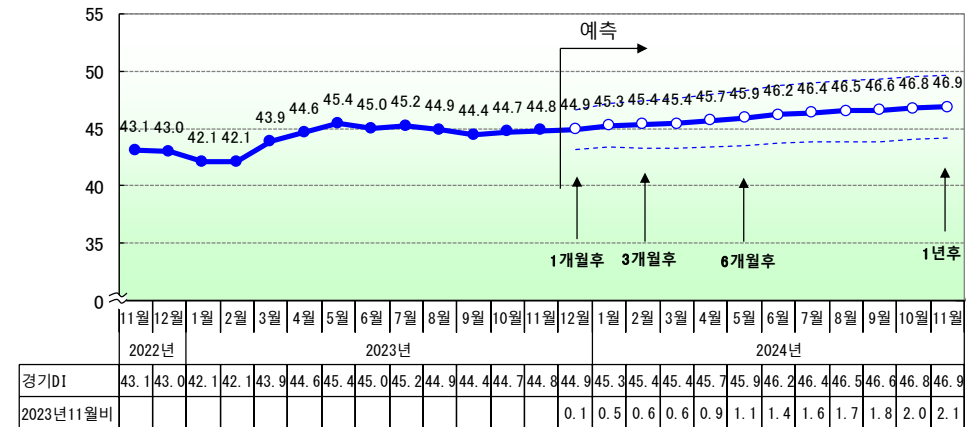
< 2023년 11월의 동향 : 소폭 개선이 계속 >

2023년 11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44.8로, 2개월 연속으로 개선하였다. 국내경기는 개인소비 관련이 저조하였지만, 인바운드의 수요와 활발한 공공 공사의 뒷받침으로 소폭이지만 개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업계와 지역에서 양극화 경향이 선명해졌다.

11월은 엔저(円低) 경향이 한풀 꺾임과 닛케이 지수가 일시 버블 붕괴 후의 최고치 갱신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추이한 가운데, 대형 공공 공사를 포함한 건설 수요의 성황이 폭넓은 업종으로 파급하였다. 또한, 자동차생산이 견조하였고, 인바운드 등에 의한 숙박수요는 국내 경기를 뒷받침하였다. 한편, 인력부족은 계속해서 반수 이상의 기업에서 보여지는 등 중·소규모기업의 약한 개인소비 관련은 체감경기의 하락요인이 되었다.

< 향후의 전망 : 보합으로 추이 >

향후는 설비투자와 인바운드 수요의 한 층 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개인소비의 행방이 포커스가 될 것이다. 개인소비는 잇따른 임금인상으로 수입 증가가 기대되지만, 높아지는 절약지향에 대해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까가 관건이 될 것이다. 또 GX 추진과 기업의 업적개선, 경제대책 실시 등도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인건비 증가와 인력부족의 장기화, 2024년 문제 등은 악재이다. 중동과 동아시아 정세 전망,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경제 움직임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임금 동향에 주시하면서도, 설비투자와 인바운드 수요확대에 의해 보합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규모별 : 「대기업」이 견인, 중·소규모기업은 개인소비 관련이 저조

- 「대기업」 「중소기업」이 2개월 연속 개선하였지만, 「소규모기업」은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견인한 가운데, 중·소규모기업은 개인소비 관련이 저조하였다.
- 「대기업」(48.4)…전월 대비 0.5포인트 증가. 2개월 연속으로 개선, 8개 업계에서 상향하여 국내 경기의 상승 요인이 되었다. 대기업 자동차 메이커의 생산이 호조였던 한편, 방재·감재 대책 등의 대형 공공 공사와 계속되는 인바운드 수요도 플러스로 작용하였다.
- 「중소기업」(44.2)…동 0.1포인트 증가.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피자·빵과 식육도매를 포함한 『도매』가 4개월 만에 상향하였다. 한편으로 『소매』는 「소비의욕이 느껴지지 않는다.」「지갑이 열리지 않는다」 등의 목소리가 들려,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 「소규모기업」(43.1)…동 0.3포인트 감소. 2개월만에 악화되었다. 「코로나로 멀어진 고객」이 돌아오지 않는다. 특히 연회는 인수가 감소하고, 규모도 축소(일본요리점) 등, 음식점의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되었다. 『소매』 『서비스』의 침체가 눈에 띄는 등, 개인소비 관련이 저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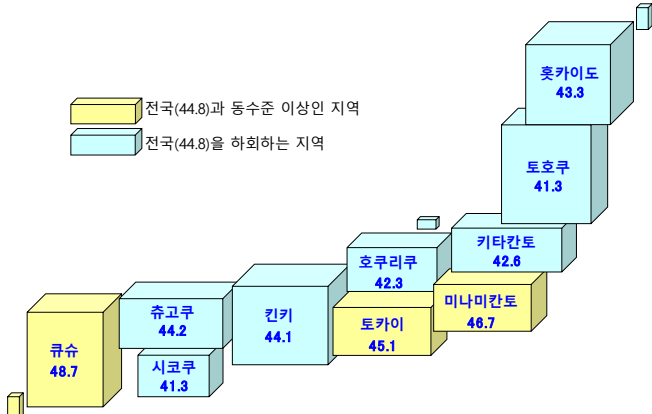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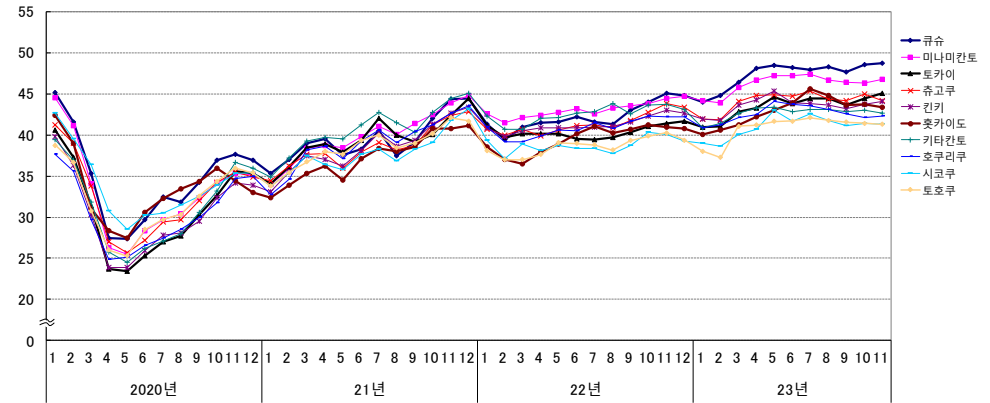
	22년 11월	12월	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대기업	45.0	44.8	44.8	44.2	46.1	47.3	48.1	47.7	48.6	48.0	47.8	47.9	48.4	0.5
중소기업	42.7	42.6	41.6	41.7	43.5	44.2	44.9	44.5	44.6	44.3	43.8	44.1	44.2	0.1
(그중 소규모기업)	41.4	41.3	40.4	40.9	42.4	42.9	43.9	43.6	43.4	43.5	43.0	43.4	43.1	▲ 0.3
격차(대기업 - 중소기업)	2.3	2.2	3.2	2.5	2.6	3.1	3.2	3.2	4.0	3.7	4.0	3.8	4.2	

*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지역별 : 10개 지역 중 5개 지역에서 개선, 공공 공사가 뒷받침 되어도 양극화 경향

- 『미나미칸토』 『토카이』 등 10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개선, 『토호쿠』 등 5개 지역이 악화하였다. 도도부현(都道府県) 별로는 24개 도부현(都府県)이 개선, 22개 도부현이 악화하였다. 견조한 자동차 생산과 신차 판매 등이 상승한 것 외, 공공 사업 증가도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였다.
- 『미나미칸토』(46.7)…전월 대비 0.4포인트 증가. 4개월만에 개선되었다. 「도쿄(東京)」가 4개월 만, 「치바(千葉)」 「카나자와(神奈川)」가 2개월 만에 개선하였다. 호조인 신차 판매 등 『소매』가 상향한 한편, 민간수요·공공수요 모두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은 3년 9개월 만에 경기 DI가 50을 상회하였다.
- 『토카이』(45.1)…동 0.7포인트 증가.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지역 내 4개현(県) 중 「미에(三重)」 「아이치(愛知)」 「시즈오카(静岡)」 3개 현이 상향하였다. 자동차 생산이 견조로, 국내와 수출용의 화물 이동이 활발하였다. 또 관광과 비즈니스 고객의 확대로 「료칸·호텔」이 4개월 만에 50대로 복귀하였다.
- 『토호쿠』(41.3)…동 0.1포인트 감소. 4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지역 내 6개 현 중 「아오모리(青森)」 「이와테(岩手)」 「아키타(秋田)」가 하락하였다. 비료와 연료 가격의 고공행진에 의한 악영향으로 『농·임·수산』이 크게 악화된 한편, 가격 상승에 의한 판매량 감소 등 『도매』 악화도 하락 요인이었다.

지역별 그래프(2020년 1월부터의 월별 추이)



	22년 11월	12월	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홋카이도	40.9	40.8	40.1	40.6	41.2	42.2	43.0	43.9	45.6	44.8	43.6	43.7	43.3	▲ 0.4
토호쿠	40.3	39.4	38.0	37.2	41.1	41.2	41.6	41.7	42.1	41.8	41.5	41.4	41.3	▲ 0.1
키타칸토	43.7	43.1	40.9	41.4	42.6	43.3	43.4	42.8	43.1	43.1	42.9	43.0	42.6	▲ 0.4
미나미칸토	44.4	44.7	44.1	43.9	45.7	46.7	47.2	47.2	47.4	46.6	46.4	46.3	46.7	0.4
호쿠리쿠	42.2	42.2	40.9	41.2	42.1	42.5	44.0	43.7	43.6	43.1	42.5	42.1	42.3	0.2
토카이	41.4	41.7	41.0	41.1	42.8	43.3	44.6	43.8	44.4	44.4	43.6	44.4	45.1	0.7
킨키	43.0	42.7	42.0	41.8	43.6	44.3	45.4	43.9	43.8	43.6	43.2	43.7	44.1	0.4
츄고쿠	43.8	43.4	41.9	41.8	44.1	44.8	44.9	44.7	45.3	44.3	44.1	44.9	44.2	▲ 0.7
시코쿠	40.0	39.3	39.0	38.6	40.0	40.7	43.0	41.7	42.6	41.8	41.2	41.4	41.3	▲ 0.1
큐슈	45.1	44.8	44.0	44.8	46.4	48.1	48.5	48.2	48.0	48.3	47.7	48.6	48.7	0.1
격차	5.1	5.5	6.1	7.6	6.4	7.4	6.9	6.5	5.9	6.5	6.5	7.2	7.4	

*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